

미디어아트 '고인돌' 이전 위해 광주 온 이정성 씨

“백남준 선생 작품 모니터 하나하나 소중”

‘스승’의 작품이기 때문일까.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일까. 이정성(68·아트마스타 대표)씨는 광주비엔날레 1층 전시관에 영구 설치된 비디오 작품 ‘고인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인돌’은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백남준씨의 작품. 지난 1995년 백씨가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특별전인 ‘인포아트’의 총감독을 맡은 뒤 14인치 67대, 20인치 12대 등 82대의 모니터를 활용해 제

고 TV 모니터를 쓰다듬으며 흐릿해진 모니터 화면과 원작의 컬러도 직접 조정했다. “선생님이 ‘고인돌’ 스케치한 것이 저한테 있는데요. 처음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와 이야기하면서 현재대로 바뀐 겁니다. 전시회 일정은 촉박한데 선생님이 총감독을 맡은 ‘인포아트’ 전시작품에 ‘고인돌’까지 설치해야 돼 공구통을 들고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를 하루에도 수십차례 오



“백남준의 손”으로 불리는 이정성씨가 25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찾아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고인돌’의 TV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7년만에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이전 ‘백남준의 손’... ‘다다익선’ 등 함께 작업

작했다. 이 대표는 ‘백남준의 손’, ‘대한민국 비디오 아트 기술자 1호’, ‘비디오 아트 제작의 세계적 달인’ 등으로 불린다. 1986년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삼성관에 500여대의 모니터 벽을 세우는 작업을 계기로 백남준과 인연을 맺은 그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씨의 작품을 다룰 줄 아는 비디오 아트 기술자다. 25일 이 대표가 비엔날레를 찾은 건 이 작품이 17년 만에 ‘이사’를 가기 때문이었다. ‘고인돌’은 승효상씨가 설계한 광주비엔날레 행정지원센터 ‘제문헌(提文軒)’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주변 환경을 감안해 옮길 장소와 설치 위치를 재선정하는 것부터 82대 모니터 상태를 점검할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

갔어요. 당시엔 휴대전화도 없었잖아요.” 첫 인연 후 백남준이 이대표에게 제안한 ‘작품’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다다익선’(多多益善·1988년)이었다. 이후 ‘메가트론’, ‘고인돌’(1995) 등 작가는 80대, 많게는 1,000여대의 TV 수상기가 들어간 백남준의 작품 수십 여 점이 그의 손을 거쳤다. ‘백남준이 스케치하고 이정성이 만든다’고 할 정도로 백남준의 아이디어는 그의 손을 거쳐 현실화됐고 백남준의 작품 전시가 열리는 곳에는 늘 그가 보였다. 백남준이 떠난 이후에도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대표가 해결사로 나선다. 다행히 백남준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아들이 비디오 아트 기술자로 같은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없으면 이땅에 널린 거장 백남준의 작품들은 조만간 작동을 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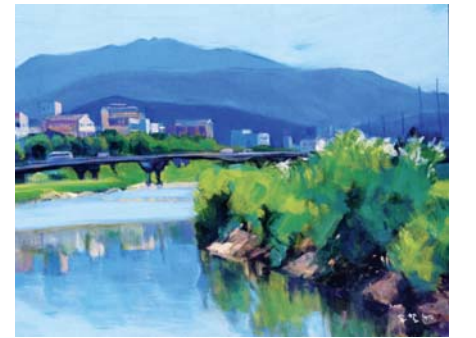
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고인돌”을 비롯, 백남준 작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 문제는 그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작품의 장기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만 하더라도 ‘메가트론 매트릭스’의 장기 보존을 위해 백남준의 작품에 쓰인 컨트롤러를 최신식으로 교체해놓는가 하면, 오래된 모니터 수백대를 사전에 수리해놓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 써서 습기 차고 먼지가 쌓여있는 작품을 누가 온다고 갑자기 작동시키면 계속

틀어놓고 있다 생기는 손상보다 커요. 스케줄을 정해놓는 게 선생님 작품을 보러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작품 장기 보존을 위해 매월 몇 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놓겠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작품 관리·보전 및 관람객들에게 훨씬 좋다는 얘기도. “선생님 상상 속의 기계를 내가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람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가족같은’ 백남준의 작품과 함께 해온 시절이야말로 언제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눈물이 날듯 그리운 고향이여

이전화개인전 오늘부터 무등갤러리

전북 부안에서 어린시절을 난 화가 이지화씨에게 산과 나무와 꽃은 너무 낯익은 풍경이었다. 그래서 도시에 발을 들인 후에는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겼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둘러본 풍경들은 옛 고향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추억케했다. 이씨가 첫번째 개인전의 주제를 ‘중경의 신비속으로’라 이름 지은 이유다. 26~5월 2일까지, 무등갤러리. 그녀의 화폭에 담긴 건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진 구례 산동마을, 나주 과수원의 배꽃, 무등산의 숲길, 이름 모를 어느 강가다.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또 행복했다. 자연의 색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색감과



‘광주천에서 바라본 무등산’

시원스러운 붓놀림이 생명력을 전한다. 광주 사생회, 광주가톨릭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생명-인간, 삶, 자연’전 등에 참여했다. 광주전 후에는 서울 인사동 라이프갤러리(5월23~29일)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문의 062-236-252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연 스님께 듣는 차와 음악이야기

광주 MBC 내일 ‘베토벤’서 강좌

차와 클래식이 어울리는 행복한 시간.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스님께 차와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MBC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교양강좌에 여연스님을 초청, ‘여연 스님이 들려주는 차와 음악에 얽힌 삶’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선사가 머물던 해남 일지암을 복원하는데 앞장섰던 여연 스님은 이곳에서 18년간 손수 차밭을 가꾸고 차를 튀기도 했으며 40여 년간 차문

화 보급에 앞장 서 왔다. 이번 강좌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열려 의미를 더한다. 지난 1982년 문을 연 베토벤은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문화 공간으로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강좌의 입장권은 주요 배부처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공연티켓 등 상품도 준다. 문의 062-222-8420, 062-360-2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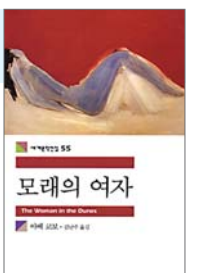


행복한 책임기

아베 코보 ‘모래의 여자’ <민음사>

모래는 살아 움직이는 흙이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막은 살아서 꿈틀대는 모래들로 인해 수시로 지형이 바뀐다.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까닭에 사막에는 좀처럼 생명이 깃들기 어렵다. 살아서 움직이므로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피렌의 연평균 강수량 기준에 의하면 250mm 이하인 지역이 사막이라고 한다. 또 사막이 생기는 원인은 중위도의 고압대에 위치하

들은 그곳의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삶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곳의 살아있는 것은 모두 피복이라고 한 김용연은 ‘사막’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읊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사막이다. 아베 코보의 소설 ‘모래의 여자’에서의 니키 준페이이는 사막에서 모질게 살아남은 곤충을 채집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막으로 떠났다가 오히려 곤충으로 살게 된 사람이다. 신중을 발견해서 곤충도감에 자신의 이름을 오



그저 사막으로 존재한다

고 하강기류가 탁월하여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건조하기 때문이다. 사하라, 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부, 칼라하리, 아타카마 등의 사막이 그 대표적인 곳이다. 위도 40도 부근에는 투르키스탄, 타클라마칸, 고비 등의 사막도 있다. 이런 땅들은 생명을 키우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시인 유창성은 ‘존재하는 모든 색을 모래로 바꾸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래로 덮어버려 /...../그저 사막으로 존재한다.’라고 노래했다. 그럼에도 이런 땅을 여행하는 자가 있고 이런 땅에서 사는 생명이 있다. 불모의 땅에서 사는 생명

래로 인해 탈출은 실패로 끝난다. 사막은 ‘모래의 여자’의 집이 있는 모래구멍 안이나 밖이나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세계였던 것이다. 마치 피부우스의 피처럼. 그런 모래의 구멍 안은 ‘모래의 여자’가 사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곳이다. 탈출에 실패한 준페이는 모래가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한 다음에야 그곳의 모래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고 유수장치를 발명 한 뒤 탈출의 기회가 찾아온 순간에 이렇게 말한다. “딱히 서둘러 도망칠 필요는 없다. 도주 수단인 유수장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 다음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입상자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 김미숙 (조선대 교수) 배성환 (숙명여대 교수) ◊전통 독무 중등부 ▲ 금상 1 김수연 (살레시오여자1) ▲ 은상 1 김지현 (화순만연5) ▲ 동상 1 손민현 (광주예술2) ▲ 최고상 1 손민현 (광주예술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영 (광주예술2) ▲ 은상 2 정세미 (나주여성2) 3 박지현 (살레시오여자2) ◊창작 독무 초등부 3.4 ▲ 금상 3 조은별 (광주신창4) 4 임가현 (화순만연4) ▲ 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슬비 (화순만연3) 2 서진아 (화순만연3) ▲ 동상 5 공혜정 (화순만연4) ◊창작 독무 초등부 5.6 ▲ 금상 2 윤나경 (화순만연6) ▲ 은상 1 김대희 (화순만연5) 3 한지영 (화순만연5) ◊창작 군무 중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상 1 오하라 외 7명 (전남3) ◊창작 독무 고등부 ▲ 최고상 1 손민현 (광주예술2)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사진 2매를 5월 2일까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
|---|---|---|---|

www.Sunchangcouncil.go.kr

광주일보 since 1952

열린의회! 알찬의정!

군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순창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자치시대를 위하여

첫째, “**힘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넷째, “**화합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